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326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2. 2. 25(금) 14:03~17:43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회의실), 영상회의
- 출석위원 : 박종관      위원장  
              박경주      위원  
              유은선      위원  
              이시백      위원  
              이원재      위원  
              이진희      위원  
              장인주      위원  
              전고필      위원  
              정유란      위원  
              정정숙      위원  
              정종열      위원  
              홍태림      위원

##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성원보고와 회의준비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부장께서는 성원보고를 해 주세요.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현재 위원 6인은 예술가의 집 위원 회의실에 참석을 하였고 5인 중에 4인은 지금 온라인 접속을 하셨습니다. 박경주 위원님께서 접속하시면 모두 참석을 하 시게 됩니다.

##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위원 한분을 제외하고는 출석 또는 접속 상태라는 것이죠? 방금 보고 받으신 것처럼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성원은 되었습니다. 온라인 회의를 하면서 예측하지 못하거나 회선이 불안한 경우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회선을 잘 정리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만만치 않은 형편에 있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동체 내부의 가족 간 감염, 직원 확진 등의 일들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르코예술극장을 대관하여 창작산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공연단 내부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습기간 중에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가 대부분 완치되었고 더 이상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아 공연이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회의실에도 위원님들만 회의실에 모여 계시고요. 불가피하게 온라인 접속을 해야 하는 위원님께서도 온라인으로 접속을 통해 회의를 참여 하시겠습니다. 가능하면 안전보고자는 현장 근처에서 온라인 접속하여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무처장직무대행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 접속하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차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임명된 강양원 신임 예술극장장님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극장장님은 지난 2월 8일 임명식 이후 2월 9일 즉시 업무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특별히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예술극장장으로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강양원 아르코예술극장장 :**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현장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극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함께 주체가 되는 그런 극장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에 무게가 깊고, 짧지만 간결함 속에 의미도 담겨 있는 듯합니다. 크게 기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술극장장과 미술관장을 현장의 의견을 그대로 받고 현장이 결정하는 선임방식을 통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현장의 의지가 잘 실려 있는 극장장이라는 점을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술극장을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강양원 아르코예술극장장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극장장님.

오늘 위원회 회의에는 지원총괄부 강신애 과장을 포함한 12인의 사무처 직원이 참관을 요청하여 온라인 참관 진행 중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차(前次) 회의 주요사항을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 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 회의실 회선이 불안하면 기획조정부장이 대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사무처장직무대행은 회선이 복원되었는지 여부를 화면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전차(前次) 회의결과는 회의자료 4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324차 전체회의에서는 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25차 서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1개의 안건 역시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전차(前次) 회의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차(前次) 회의결과 보고를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의결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22년 공연예술창작 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공모추진계획(안)이 상정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규정 개정과 예술위원회의 고유권한인 회계연도 결산과 기본재산 설정의 건 등이 의결사항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928호부터 제937호까지 총 10개의 의결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중관 위원장** : 지금부터 의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28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별도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건과 안건번호 제929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별도공모 추진계획(안), 안건번호 제930호 2022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별도공모 추진계획(안) 등 3개의 의결안건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고 논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홍승옥 공연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시 10분 박경주 위원 온라인 접속)

**홍승옥 공연예술부장** : 창작산실사업 별도공모 3개 사업을 묶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사업은 창작오페라발굴지원사업입니다. 회의자료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곡가와 극작가에게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2년의 단계별 제작지원 과정에서 이번에 의결하실 것은 첫해 연도의 음악과 대본을 완성해 나가는 분야에 대한 창작지원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원대상은 자율 주제에 따른 중·소형 극장으로 약 1,000석 미만의 극장에서 공연되어질 신작 오페라에 대한 창작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수 원작 공연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재창작된 오페라 대본 및 음악 작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올해 발굴된 사업들로 약 5건 정도 발굴할 예정인데요. 팀당 2,000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발굴된 사업들을 2023년도 쇼케이스 지원을 통해서 최종 2개 내지는 3개 작품까지 최종 본 공연을 선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해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에 공모예산은 총 1억입니다. 추진일정은 이번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 창작산실사업의 실연심의 일정이 있어서 3월 22일 사업공고가 시작되면 심의는 4월~5월 중으로 하고 결과발표는 5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과 상연까지 단계별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관심 있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실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준비지원과 진출지원 등 2가지 유형을 모두 지원했었는데 2022년도부터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창작뮤지컬해외진출플랫폼운영지원 예산이 약 10억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작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사업협의를 통해서 중복, 그러니까 준비단계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원을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진출 확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원대상은 국내 창작뮤지컬 중에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연단체와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에 한하고요. 지원규모는 올해 총 예산이 2억 7,000만 원인데 단체별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2개 내외의 작품이 선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공고일정도 앞서 말씀드린 창작오페라발굴지원 사업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 22쪽입니다. 4번 항목인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체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창작산실은 창작실험활동지원사업, 대본공모사업, 사전제작활동지원사업, 올해의 신작까지 크게 4단계로 운영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은 그야말로 아이디어 구현을 하기 위해서 조사·연구·워크숍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고요.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들이 기획단계, 쇼케이스 단계 등 2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올해 사전제작 발굴지원 사업이 정식공모를 통해 진행되면서 공연예술 창작실험활동지원 사업들은 조금 더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 공연 예술 장르로 연극, 무용, 전통예술, 음악, 창작뮤지컬이고요. 여기에 대한 단체 및 예술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창작산실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실연자, 연주자까지도 지원신청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전체 공모예산은 3억이고 해당 사업별로 지원규모는 500만 원 정액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0건 정도가 선정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의 공고일정과 공모결과 발표 일정도 앞선 2개의 사업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공연예술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우선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사전의견서를 제출한 사안은 혹시 없었나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네, 없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3가지 공모안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더 자료를 살펴볼 시간을 드릴까요? 먼저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정종열 위원 :** 창작오페라발굴지원 별도공모 추진을 보면 이것은 1년차 계획인 거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맞습니다.

**정종열 위원 :** 2년차에 들어가서 5개 팀을 쇼케이스로 하고 그중에 본 공연으로 가는 것은 2개 팀인데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될 예정입니다.

**정종열 위원 :** 그렇다고 하면 그 팀의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여기에는 1차만 나와있어서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약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될 예정입니다. 작품들의 규모를 봐야 하는데요. 아직 예산까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총예산은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정종열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쇼케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공연까지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그분들이 최종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겠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쇼케이스를 위한 지원금은 1억 4,000만 원 정도가 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작품별 2,000만 원씩이요.

**정종열 위원** : 따로 되어 있고 본 공연으로 또 한다는 것이네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심사를 통해서요.

**정종열 위원** :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지가 나와 있지 않고요. 물론 1년차 계획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질의하신 핵심이 2차 본 공연까지 진행되었을 때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간, 영역으로라도 알려줄 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수하면서 사용함에 있어 내년도의 예산을 미리 확정해서 고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의견을 주신 내용을 공모추진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묻고자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정확하게 사업규모를 정해서 갈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료 11쪽을 보시면 저희가 사업추진 절차를 공모계획안에 올릴 텐데요. 2차 년도에 2023년도의 대략적인 예산을 적시해서 공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억 5,000만 원은 아니고요.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내외.”라고 적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중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12페이지를 보면 극작가와 작곡가 역량평가 기준이 작곡가의 경우에는 몇 년 이내 몇 곡이라는 것이 없고 극작가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작곡가의 경우 작품 몇 개라고 제출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도 몇 년 이내라는 기준이 없이 그냥 최근 발표작품 2편으로 하면 어떨까요? 극작가가 작품을 매년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무대화되는 건 작품이 많아도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최근 2년 이내”라고 붙이는 것은 이미 지원서를 내시는 분들께 한번 필터링이 돼서 걸러질 것 같아요. 왜 2년이라고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보시면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 또는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1편+ 미발표 작품 1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신작이 아니라 미발표 작품 1편

과 발표되었던 작품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정시공모 준비를 하면서 정종열 위원님과 타 분야의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거친 후 진행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종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안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희곡을 쓰기 때문예요. 사실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낼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려면 이 부분을 없애거나 5년에서 6년 정도로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희곡을 쓰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준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정종열 위원 :** 박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검토할 때는 작곡가만 본 편이었고 극작 쪽은 보지를 않아서요. 저희 쪽에서는 2~3년도 짧다고 생각하고 좋은 작품이면 그 이상의 작품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데요. 극작은 제가 사실 보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맞춘다고 하고 이것을 없애든지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넓히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자면 응모조건과 관련해서 현재 기재되어 있는 “2년 이내 2편”의 제한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으니 조금 기준을 완화할 수 없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요. 위원 간 논의를 통해서 타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면 될까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희곡작가들 중에서 무대화되지 않은 작품이 많은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분들도 평생 쓴 작품이 30개 미만이거든요. 15개 미만으로 쓰신 분도 있고요. 작곡가 기준과 맞추려면 자신의 가장 좋은 작품 2편을 추려서 낼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만약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타당하지 않다면 5년이나 6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필터링이 되는 거라서 몇 년 이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정종열 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최근 발표 작품 몇 편”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경주 위원 :** 동의합니다.

**정종열 위원 :**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으면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공연예술부장의 정리를 들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고, 심의나 선정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처럼 “최근 발표작품 2편”이라는 정도로 수정을 해서 공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5년 이내라든지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의 범위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혹시나 이 건이 옴부즈만에 접수되면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5년 이내 2편” 이런 식으로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연예술부장께서 이야기 한 내용을 대입하면 “최근 2편”이라고 했을 때 ‘최근이 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상 최근이라는 것은 2~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을 대단히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기간이 없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감사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최근’이라고 했을 경우 명확한 자격조건을 허용하거나 제한하거나 인정하는 구분점이 안 되니까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이고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2편”이라고 하든지 “최근 5년 이내 2편”으로 하든지 해서 자격조건을, 이 논의의 출발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자격조건이 너무 높아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켜 달라는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회의 중이라도 성안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3년 이내 2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이내 2편”으로 할 것인지?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작가가 발표한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이라는 것이 일정 기간 안에 굳이 묶이지 않아도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인식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최근에 한 작품이 10년 전에 한 작품이라면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탈락 사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인식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가 개인적 기준 안에서 10년이면 그것도 최근 작품으로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요원 감사** :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옴부즈만이 들어오는 경향성 중에 하나가 공동 작업을 하다가 서로 틀어져서 문제제기가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근’이라는 것은 2~3년을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곡가와 극작가가 서로 잘 맞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틀어져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최근’을.....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10년도 최근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기준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몇 년에 몇 작품보다 기회를 넓히자는 것에 핵심이 있으니까 “발표작품 2편”이라고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박경주 위원** : 동의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기간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니까요.

**남요원 감사** : 그렇게 해 주시거나 아까 박경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평생에 30편 정도의 극작을 창작한다고 하면, 통상적 범위 안에서 “최근 5년 2편” 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작품 2편”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신작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감사님의 의견에 비동의를 한다는 것보다 제출서류 및 자료에서 작곡가나 극작가가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가 내는 포트폴리오에는 몇 년 이내라는 말이 없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의 얘기를 들겠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한번 여쭙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부즈만에도 작년에 한번 이의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3번 사업내용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몇 쪽인가요?

**김기용 감사실장** : 10쪽입니다.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창작뮤지컬과 창작오페라 간 장르적 구분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서 창작뮤지컬과 창작오페라..... 여기에 보면 두 번째인데요. “연극(희곡), 문학작품 등 타 분야에서 기존 작품성이 검증된 원작을 기반으로 하여 재창작된 오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뮤지컬에서 오페라로 변형하는 것도 지원대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 음부즈만 이의제기 내용 중에 뮤지컬이었는데 음악만 조금 변형해서 오페라로 제출하였고 이것이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본다면 우리가 보통 문학작품이나 아주 경계가 명확한 작품들이 오페라로 재창작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접장르 또는 유사장르에서 오페라로 가는 게 이 사업 취지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면 명확하게 지원공고와 지원방향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이의제기를 저희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뮤지컬 또는 오페라에 계시는 분들이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한 부분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에 “작곡가와 극작가가 창작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이라는 취지가 목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재창작하는 것과는 방향성이 약간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새롭게..... 기존에 있던 희곡이나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오페라 대본으로 만들 때는 또 다른 장르로 가는 거라서 새로운 창작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

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떤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된 의견이 있어야만 그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논의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가 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표작품 2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추가로 감사실장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이른바 인접장르의 창작아이디어의 이용, 예컨대 각색 등을 어느 범위까지 창작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추가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창작오페라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창작뮤지컬의 경우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4년도에 창작산실 사업의 초기 설계 당시부터 신작과 기존에 있는 작품의 재창작에 대한 기준을 오랜 시간 논의를 거쳐 재창작의 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페라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타 장르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기준이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뮤지컬에서 오페라로 전환도 분명히 재창작이다.”라는 위원님들과의 이야기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사무처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대로 가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연극 이강백의 ‘결혼’이 소극장 오페라 ‘결혼’으로 창작된 것은 창작이죠. 이미 이런 전례들이 있고 그 전례들은 부장이 설명한 대로 오랜 논의를 통해서 규정한 바가 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안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논의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3가지 추진계획(안)을 함께 의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수정하기로 한 “최근 2년 이내 발표작품 2편”은 “발표작품 2편”으로 수정토록 하고요. 후속 논의된 창작아이디어의 인접장르 응용이라든가 재창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업의 목적 범위인 “창작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고 지적하신 내용을 수정한 안으로 수정의결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의 의사도 확인해야 하니까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의안 제 928호 2022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 발굴지원별도 공모 추진계획(안)은 수정의결, 의안 제929호, 의안 제930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신다면 손을 들어주시고 반대의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으므로 제928호는 수정의결, 제929호와 제930호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931호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계획(안)입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은 크게 민간소공연장지원 그러니까 소공연장을 보유한 예술단체의 기획공연을 지원하는 사업과 대관료를 지원하는 2개의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후에 기획조정부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올해 대관료지원 사업은 40억 원이 추경편성이 되어 이번 주 내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소공연장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본 예산 10억 원으로 확정되고 추경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과 지금 현재 작년까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기타보전금 형태로 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된 단체들이 기획공연보다는 대관공연을 기획공연화 시켜 부정수급과 같은 사례들이 있어서 올해 10건 정도의 환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소공연장을 코로나 이전 단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000만 원 소액다건 형태로 지원하던 사업들을 올해는 사업의 본 목적에 맞게 특성화된 공연, 기획을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 역시 대상사업들은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까지 포함한 민간소공연장을 보유하고 있는 공연단체가 되겠고요. 지원신청자격으로는 민간소공연장으로 객석수 300석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에 대한 책정이 필수고요. 약 10% 이상 필수로 책정되어 있고 지원의 경비는 직접경비,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직접경비와 운영경비를 최대 40%까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931호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계획(안)을 담당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요청하였습시다만, 사전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미처 의견개진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이 있다면 질문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 공고문의 첫 번째에 설명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 지원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적어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번의 지원내용에서 기초공연예술의 범위라고 참고로 적어놓으셨는데요. 다른 지원공고문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여기에는 이것이 있어서요. 원래 이렇게 나갔던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죄송합니다만 말씀하신 페이지가 어디인가요?

**정종열 위원 :** 34페이지의 지원대상 밑에 참고로 기초공연예술의 범위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원 분야도 기초예술을 다루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자세하게 적어놓으셨습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해당 사업들을 통해서 공연을 하다보니까 상업극 같은, 여기에서 상업극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오픈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형의 사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예술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야 불필요한 행정낭비 그리고 신청하는 단체의 입장에서도 신청하셨다가 해당 분야가 아니라서 탈락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정종열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란 위원** : 다른 것은 설명이 잘 되었는데요. 궁금한 것은 주관처 운영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와 (주)사람과문화건축사사무소가 컨소시엄으로 운영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2021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2022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공모를 하고 저희가 직접 심의를 합니다.

**정유란 위원** : 그렇죠? 확인하고자 여쭙봤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편에서 소액다건 형식의 긴급지원을 민간공연예술인육성에 집중지원 방식으로 전환된 배경과 이른바 의사결정을 위한 배경 선택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를 간략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사실 연초부터 추경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회계로 120억 정도를 편성해서 민간소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편성을 예정하고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가 수탁사업 형태로 진행을 하려다가 갑자기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사라지고 대관료지원사업만 추경으로 40억이 편성되어서 금주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을 통해서 심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더 늦춰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편성이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소액다건 형태로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년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어려운 공연장을 보유한 예술단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을 하였으나 추경편성도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공연장을 오픈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좀 보태주시지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추경 사업으로 40억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고를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내부에서 판단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업기준을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 내부에서 이런 지원사업의 큰 부분을 현장의 검토나 소위원회 검토 없이 그냥 바꾸는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지금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변경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전 단계의 본래 사업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억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공연장수가 1,000만 원씩이면 100개소 내외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20억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충분히 민간소공연장의 코로나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유효성이 있었으나 10억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전년도에 지원받던 수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서 사업의 실효성이 염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문제는 지금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미 10억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확정되어 있고 다른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새로 준비되고 있는 사업의 사업명이 뭐죠?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대관료지원사업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2개가 함께 작동되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보완이 되겠군요.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면 공고문 상단에 있는 설명문 말미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시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지원 공모를 추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간소공연장지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있을 대관료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네요.

**홍승욱 공연예술부장** : 이 사업은 민간소공연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추경편성에 대한 부분들은 연도 증반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작년에도 3월 이후에 추경편성이 있었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아무래도 공연예술분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웬만큼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공연 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게 될 경우 어떨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논의를

중결하고 의결절차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안건번호 제931호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민간소공연장지원 유형) 공모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이 없으시면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찬성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원안에 반대가 없고 동의를 해 주셨으므로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공모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사항은 안건번호 제932호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안건번호 제932호 2022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회의자료 41페이지입니다.

주요사항과 전년 대비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사업 추진개요에서 지원대상을 보시면 기존 예술장르 형식이나 조건에 대한 제약 없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예술창작 준비 및 발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지원대상을 다원예술로 정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신청자들의 행정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지원대상을 좀 변경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원예술TF 운영경과입니다. 박경주 위원님을 포함한 다원예술TF의 1차 회의에서 작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개선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논의했고요. 그안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지난주 수요일 3차 회의에서 공모계획(안)의 초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TF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문구수정 등을 반영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난 3차 TF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는 안으로는 창작준비지원과 창작발표지원으로 2개 트랙을 한정하고 있는데요. TF 논의과정에서 공간지원을 포함하는 매개 형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많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다원예술 매개공간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었고요. 폐지되었던 다원예술 분야의 사업을 복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TF에서 모두 공감을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다원 분야의 예산이 전년대 동일한 4억 8,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들을 추가할 경우 기존 창작 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올해는 준비지원과 발표지원의 2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영역을 확장해야 한다는 TF의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의 추진방향 중에 세 번째 ‘간접지원’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사업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사업관리라든가 홍보, 모니터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개선사항인데요. 일단 공모사업명이 기존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서 ‘다원예술 창작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트랙구분은 기존에 ‘창작지원’ 한 가지로 있었는데 지금은 ‘창작준비지원’, ‘창작발표지원’ 등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5개의 구간을 나눠서 해

당 금액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올해는 준비지원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리고 발표지원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구간만 설정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동료평가나 블라인드 심의는 올해 폐지하고 심의는 전담심의위원 총 7인으로 심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창작준비지원의 경우에는 1차 서류심의만으로 진행하고 발표지원은 다원예술 분야의 특성상 실제로 구현되는 결과물을 서류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2차 인터뷰심의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10%를 편성하고 지역균형지원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다음주 3월 2일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3월 23일까지 3주 정도의 접수기간을 갖고 4월에 심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사전검토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10%의 필요성 그리고 이게 없으면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 자부담 10%는 저희 쪽에서 사업관리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요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자부담 편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명 변경에 대해 강조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공고시기가 작년과 다르고 사업명에서 '활동', 'Reboot' 이런 부분이 빠지고 '창작'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혼돈하실까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명 변경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지원사업체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창작 영역에 대한 지원에 대중예술이나 생활예술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활동지원을 창작지원으로 바꾼 것에서도 보여 지듯이 생활예술부분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기존에 장르칸막이 때문에 신청에 제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약을 해소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예술사업과 차이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예술에 대한 차이점 뿐만 아니라 아트앤테크 융복합 사업과 중복여부가 조금 더 고려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TF에서도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정기공모에 포함해서 가려고 하는데요. 그사이에 타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는 많이 고려해서 내년도 사업공고가 나갈 때는 해소해서 공고를 내보내도록 하고요. 작년 연도 중반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서 다음번 공모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932호 2022년도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 기본계획(안)과 관련되어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사전의견서를 내신 분들께서는 부장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대림 위원 :** 제가 사전질문을 드린 것은 관련해서는 다 알겠는데요. 자부담 측정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사업이니까 자부담 측정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측정을 이번에 하게 되는 근거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관리라고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부담이 있는 게 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관리의 투명성보다는 사실 지원보조사업자의 책임성에 더 방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한 관리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미리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분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하나만 여쭙 봐도 될까요? 48쪽을 보시면 지원금예산 편성항목 중에 일반수용비 비교란에 보면 ‘본인사례비 편성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자는 개인이거나 지원단체의 대표자일 텐데요. 대표자나 개인이 본인의 사례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본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사례비라는 것은 국가보조금의 성격이라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요. 조금 더 지적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사례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김기용 감사실장** :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획을 한다거나 연출을 한다는 등 역할을 하셔야 사례비 지급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시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보여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적시하여 본인사례비를 편성하도록 공고문을 통해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받도록 하고 정정숙 위원님의 발언을 들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다원예술과 관련된 TF가 구성되고 그 TF에서 논의를 거쳐 이렇게 공모안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트랙 같은 것도 정리를 해서 2가지 트랙으로 통합한 것도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고 이해하기도 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자부담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국고보조금 평가와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방안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부담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원예술가들에게는 자부담이 들어온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요. 평가를 받는데 심각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조항들은 조금 더 유보를 하셔서 최소한 “5년 후부터 자부담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는 없는지 사무처에 질문을 드립니다.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면 10%를 편성하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법에서 보조금의 정리를 할 때 국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외의 자가, 주체자가 말하자면 예술가나 단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 보조금인데요. 그 정의에서도 자기가 직접 주체하는 것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담하는 것을 정의 속

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정상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보면 규정에는 명확하게 의무규정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자부담 능력 등을 반드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부담금을 집행할 때도 국고보조금보다는 자기부담금을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당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10% 이상 반드시 자기부담금을 편성해라.”라는 것이 있었고요.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보면 통상적으로 1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10%, 20%를 하다가 저희들 위원회에서 코비드가 생기면서 이 부분을 개인예술활동인 문학이나 전시 같은 경우 그리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기재부와 협의 없이 편성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열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아직도 공모사업 소개를 보면 이 사업은 내용이 거의 적혀 있지 않거든요. 공고를 내실 때 확정된 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추진방향이나 목적이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올리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온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48쪽의 지원금예산 편성항목에 ‘본인사례비 편성가능’의 경우에는 괄호 열고 “본인이 본인사례비를 편성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를 명확히 적시” 정도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부서의 요청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원예술의 중요도에 비해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니 사업이 확정되면 조속히 이런 부분에 관한 통로를 열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위원장님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자부담 문제는 저희가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전체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무총리께 직접 건의하여 진행하였음에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과 합의 하에 다원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만, 2022년도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안대로 집행함이 어떨까 하여 현재 제출된 안으로 제안 드린 것입니다. 논의가 부족하면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궁금한 건 43페이지 표대로 되었을 때 어떤 질문이 현장에서 들어올 것이냐 하면, “그러면 2021년도에는 어떻게 가능했냐?” 현장에서 봤을 때는 후퇴한 안이잖아요. 저는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면 2021년도에 위원회가 자부담편성을 안 했는데, 그리고 다원이 여러 논란과 쟁점이 있지 않

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용도 너무 베이직 해서 다원예술지원제도라고 기대되는 게 없는데 오히려 자부담까지 편성이 되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사이에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건가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실무 쪽의 설명을 들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왜 올해 편성이 되었어요?”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국가지침이 바뀌었다.”, “법이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하면 예술위는 설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설명이 힘들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자부담 10% 편성이 다원예술 사업의 특성이 아니고 저희 정기공모를 포함한 대부분 사업들에서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작년 대비 뭐가 바뀐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10%를 유예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기재부를 상대로 얘기할 때 “이 사업은 연도중반에 생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예했습니다.”라고 말할 여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2차 년도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담당부장과 본부장의 긴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묻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부담이 없던 사업이 2022년도에 자부담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부장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송시경 예술창작본부장** :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정준화 부장이 참여한 TF 1차, 2차, 3차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듣지를 못해서 즉답은 못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규정상으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의를 할 때, 또 보조사업 연장평가라고 해서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에 대해서는 평가의 요소로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정으로 완전하게 뭘 해야 한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봐라.” 그리고 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가장 먼저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예외적으로 “10% 이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문체부나 예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거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를 하라는 부분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없고 내부적으로 예전의 부분을 준용해서 하고 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동안 저희들이 “문학과 시각 등 개인예술 부분이 좀 어렵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원예술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 2가지 트랙 중에서 제 2트랙만 “최소한 10% 정도로 하자.”라는 부분으로 넣어놓은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토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숙 위원** : 지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대비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원TF에서 이것을 용인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코로나 시국이 끝날 때까지 혹은 최소한 3년 정도 다원예술과 관련된,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제 막 시작이 돼서 최소한 안정이 될 때까지는 다원과 관련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원예술가들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안정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갑자기 없던 것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야기 시킬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유보 시간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21년도에 자부담이 없던 사업이 2022년도에는 왜 자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대답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현행 5억 규모인 다원예술지원금 사업을 향후 증액하고 보조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 사업은 불가피하게 자부담 편성을 하도록 하였고 현장과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놓고 정정숙 위원님께서 재의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은 현재 있는 5억 규모로 안정화 시키거나 할 필요가 더 강화된다면 자부담 문제는 위원회가 다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고요. 사무처장직무대행의 의견을 들겠습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조금법상으로는 “국고보조금 비율을 예산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 적용하는 것은 기재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국고보조율은 문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 예산에서 개별적으로 보조율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재부와 협의한 상태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10%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요. 우리 예술위원회 사업 중에서 준비과정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다원예술 트랙에 대해서는 다원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정리했던 워딩에서 이것만 보태면 되거든요. “보조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사업은 불가피하게 다른 여타의 예술창작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자부담을 편성하였고, 이 과정을 현장에 설명하고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과정을 요약한 것과 차이가 있나요? 일단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부담이 되니까 줄여주자는 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회의니까 판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자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토론할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 얘기의 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안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원이 지금 핫코너인데요. 핫코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을 하셨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디펜스가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작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게 공론화 되면 TF위원들이 “우리가 동의를 했고 현장과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부담을 하겠다.”라고 말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제로입니다.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저는 “문제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표가 나가는 순간에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왜 없던 자부담이 생겼느냐?”라는 말이 나올 것인데요. 지금 말을 한 대로 설명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트랙들도 판단에 의해서 면해주는 게 있는데요. 그러면 “왜 자꾸 다윈만 이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의 폭이 크므로 의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회 중에 논의가 있었습디만, 우선 다윈예술TF 팀장님으로부터 자부담 여부에 대한 TF 내에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희 TF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방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논의 속에서 제일 많이 우려되었던 부분이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왜 갑자기 생기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으니 당황스럽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6년 동안 지원사업이 없었다가 작년에 복원이 되었고 그러면 뭔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자부담을 완화해 줘서 예술가들이 회복할 수 있게 배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자부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창작 준비는 자부담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설득해서 동의가 되었고요. “10%는 계속 안 가져갈 수는 없으니 올해는 넣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TF 안에서 논의가 되었던 우려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재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부담에 관한 것이 의무사항인지? 혹은 예산을 쓰는데 지켜야 할 원칙과 관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으므로 사무처장직무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고보조율은 예산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예진흥기금은 타 분야와 달리 10% 정도 수준의 최소 보조금 비율을 기획재정부에서도 인정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으로 첫 번째가 개인 창작지원에 관한 사업 그리고 순회사업 등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국가적 의무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현재 창작준비과정, 과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율을 적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원예술창작지원 부분에 있어서 창작준비지원사업 트랙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고보조금 자부담 면제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무총리실 이라든가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기획재정부의 과장이라든가 담당사무관의 입장에서 이 사업은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홍태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홍태림 위원** : 지금 박두현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자기부담금 의무비율 예외기준은 2020년 기준과 지금이 다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이것과 관련하여 확인했을 때는 예외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사무처에서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개인지원이나 과정과 관련된 리서치, 비평, 실험적 사업, 청년지원 사업, 국가사무위탁 성격이 강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기초다양성 사업에 해당하는 다원예술 같은 경우도 어린이·청소년지원 사업과 함께 자부담이 제외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올해 다시 풀리는 게 신규사업이었다가 한해가 지나서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을 다시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원래 들었던 자기부담금 의무비율 기준과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제외했다는 내용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들었던 자기부담금 예외기준 중에 실험적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도 기준으로 유효하다면 다원예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험적 사업에 해당해서 자부담 제외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린이·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지만 다원예술 같은 경우는 증액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서 당분간은 자부담 제외를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미 창작준비지원은 이미 자부담 제외사업으로 빠져 있는데요. 홍태림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이 부분을 이른바 실험적 예술활동으로 분류하여 창작발표지원도 규정상 허용이 된다면 자부담 제외사업으로 하자는 것인데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하여 의결안을 조율한 결과 자부담 적용 문제에 관해서는 창작준비지원의 경우 이미 자부담 적용이 제외되어 있고 창작발표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블랙리스트 회복 과정이라는 측면과 다원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 한해에 한해서 자부담을 유예하여 당초 제출된 사업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십시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동의를 있었고요. 이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의결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다원 리부트 사업 이후로 긴 논의를 이어오고 2022년도 공모안을 마련해 주신 다원TF 팀장 및 TF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공모사업(안)은 원안에서 창작발표지원을 앞서 정리한 대로 블랙리스트 치유·회복 과정의 측면과 다원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년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22년도 한해에 한하여 자부담을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시백 위원** : 어휘가 기록으로 남을 때는 공식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논의의 내용으로 봐서 맥락상 예외적으로 면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러기에 유예라는 것은 연기하고 뒤로 늦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한다면 “면한다.” 또는 “예외적으로 면한다.”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블랙리스트 치유·회복 측면과 다원 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년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자부담을 면하고자 한다.”라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원재 위원** :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유예였죠. 1년을 유예한다고 하면 유예고요. 만약 1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면한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된다면 그게 좋다는 입장인데요. 면한다면 이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결정사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한하여 면한다고 하면 같은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면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원재 위원** :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그러면 지금만 피하게 되는 거죠. 내년에도 또 똑같이 되니까요. 저는 만약 자부담을 해야 되는 원칙이 바뀌지 않고, 다른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의견을 주신 게 장기적으로 다원예술의 재원 실링을 넓히려면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TF에서 동의가 되었다면 유예를 하고 유예가 된 것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1년 유예가 된 것이고 내년에는 자부담이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자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다른 것처럼 앞으로도 다원은 그런 취지에서 면할 수 있다면 “면한다.”라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용어상 정리는 자부담 면제를 유예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적용을 유예하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저는 내용을 결정하자는 거죠. 올해도 작년처럼 면하고 내년에 또 다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면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현재의 자구로는 2022년도 사업만 결정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면하거나 유예하거나의 문제에서 저는 이시백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도 더 정확한 용어를 찾아야지 유예를 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이원재 위원** : 여기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년에 그 내용을 모르면 현장에서는 “왜 갑자기 생겨?” 이렇게 되고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며 매년 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자고 제안 드리는 거죠. 일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여러 맥락의 상황상 올해는 유예한다고 결정할지? 아니면 다원은 과감하게 면한다고 결정할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다시 이 논의가 나오면 똑같은 혼선이 일어날 것이니까요.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 : 이시백 위원님의 말씀과 이원재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한 표현이 “2022년도에 한하여 보조금 적용을 유예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러니까 “면하고 다음해로 유예한다.” 이렇게 2가지를 다 넣으면 예보가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예상할 수 있게 해 주고 근거를 남겨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는 공모가 나갈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을 2줄 정도 달면 공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적용을 할 거라면요. 그런데 면할 거라면 그 표현은 필요가 없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2022년에 한하여 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셨죠?

**정정숙 위원** : “2022년도에는 면하고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용 안에 예고를 해 주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2023년도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올해는 올해까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정정숙 위원** : 그게 현명할 것 같기도 한데요. 예술인으로서 내년엔 자부담을 넣으면 그때 또 다시 문제제기가 될 거니까 미리 예고를 해 주자는 거죠. 우리 예술위 차원의 행정파트에서는 부담비율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해서 특별히 면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적용한다는 것을 예술인들에게 예고해 드리자는 거죠.

**박종관 위원장** : 아까 자구를 어떻게 정리 어떻게 하셨죠? “2022년도 한해서 면하고 2023년부터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견이 없으세요? 제가 자구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치유·회복 과정 측면과 다원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 연속하여 2022년 한해에 한하여 자부담을 면하도록 하고 2023년부터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견이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다시 의결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긴 논의를 통해서 공모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다원예술TF 팀장과 TF 팀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주신 원안에서 몇 가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본인비율 편성과 관련해서는 앞서 정리한 대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신청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공고문에 추가하고 원안에서 자부담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는 블랙리스트 치유회복 과정이라는 측면과 다원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 ‘2021년에 연속해서 2022년 한해에 한하여 자부담을 면하고 2023년부터 자부담 자기비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의결정수가 되었습니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이 찬성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정회 중에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잠시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결은 되었습니다만, 34쪽에 기초예술, 공연예술의 범위를 설명하는 용어 중에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합니다.”라는 용어를 ‘조작적으로’를 빼고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라고 바꿔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원

예술 창작지원 사업 기본(안)에 관해서도 일일이 정리는 하지 않았습디만, 44쪽의 자부담 미적용 문제라든가 47쪽의 자부담 제외적용 문제, 48쪽의 자부담 10% 의무 편성과 관련해서는 용어를 의결할 때 짚어주신 내용으로 “블랙리스트 치유와 다원예술이라는 실험성을 고려하여”와 같은 용어를 활용하여 재공고문을 작성하는 것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심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번호 제933호 2022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2022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5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원TF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차례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정유란 위원님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논의를 진행했고요. 전년 대비 바뀌는 사항은 55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사업명이 ‘아동·청소년 대상 예술 활성화 지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혼돈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유형은 작년의 경우에는 창작준비형, 제작준비형 등 2가지로 나뉘어서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트랙이 2가지로 나뉘지는 것은 마찬가지로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결과물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트랙은 창작준비지원, 두 번째는 창작발표지원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자문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은 창작발표지원의 경우 미공개신작이 아닌 기존에 공개가 되었던 작품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기존 공개작품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창작신작만 해당이 되었는데 논의결과 이 사업은 장르적 특성보다 어린이·청소년은 대상지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기존에 공개되었던 작품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마련했습니다. 단, 최종 선정할 때 기존작품의 경우에는 전체 선정건수의 50% 이하로 제한해서 규모가 작거나 신규 진입하는 단체들이 위축되거나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별도의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5억에서 올해 15억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다원예술과 마찬가지로 준비지원에 해당하는 트랙1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결과물이 공개되는 발표지원의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의무 편성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는데요. 아까 제가 다원 분야의 자부담을 말씀드리면서 연도중반의 신규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것보다는 아까 박두현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설명을 드린 대로 과정 지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합의된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다원예술의 경우에도 그런 과정 지원과 발표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원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업들 중에는 그런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부담을 면제할 수 있었던 논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준비와 발표로 나누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 동일한 룰을 적용해서 저희가 마련한 안으로는 발표지원의 경우에는 10%를 자부담으로 편성하되 과정에 해당하는 준비지원은 면제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마련했습니다.

56페이지를 보시면 지원 장르는 문학, 시각, 공연, 복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각각의 장르별로 적용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지원유형

은 트랙1과 트랙2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윈과 다른 점은 창작발표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액수의 범위를 1,000만 원에서 1억 원 안에서 지원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는데요. 자문회의에서 논의를 한 결과 준비지원의 경우에는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사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액을 정액으로 구분해 두는 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낫다는 의견 때문에 일단 정액지원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의 차별점이라고 하면 작년의 경우 처음으로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운영했었는데요. 실제로 교육이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행사 등 다양한 장르가 참여하다보니까 장르끼리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행사, 모니터링 등 성과관리 같은 부분들을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작년 권고내용에 퍼실리테이터가 모더레이팅을 하는 부분으로 명시되고 있는데요. 용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 ‘모더레이팅’이란 용어는 삭제하고요, ‘창작협력단’이라고 작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괄호 열고 ‘퍼실리테이터’라고 병기는 하고 있고요. 역시 퍼실리테이터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으로 정액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문학, 시각, 복합, 공연예술 등 그룹으로 나뉘어서 전담심의위원제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58페이지의 추진일정은 다윈예술과 동일하게 3월 2일 공고해서 3주 정도 접수를 받고 4월에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2022년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정준화 지원총괄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사전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7쪽을 보시면 창작협력단의 사업내용입니다. 그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전년도와 다르게 “교부, 정산을 위원회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부는 당연히 위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정산을 위원회가 진행한다라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예술위 사무처에서 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전년도 퍼실리테이터의 경우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지원금을 교부하고 지원사업자들의 편의를 보는 측면에서 e나라도움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퍼실리테이터를 통해서 정산교부가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보조금관리상 맞지도 않고 퍼실리테이터 본연의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개별지원사업자들이 교부 정산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퍼실리테이터는 그 역할을 빼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원재 위원 :**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감사실장님 추가말씀이 있으세요?

**김기용 감사실장 :** 그 말씀은 교부를 받으신 분께서 정산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그 의미죠?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원사업자가 직접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편하게 말씀드리면, 왜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감사실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실과 부서들 간 협의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안건마다 감사실장님이 질의를 하시거든요.

**김기용 감사실장** : 이 안건은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고 사업계획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왜 협의를 안 하시냐고요. 감사실장님이신데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료검토나 협의가 왜 안 되나요? 질문입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이 자료는 사전에 저희 쪽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혹시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 다음부터는 주무부서와 감사실이 사전협의를 하시고요. 회의에 와서는 그런 단순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무처 내에서 소통하여 위원회에 올라오기 이전에 지금 있는 정도의 상식적 범위의 협의는 이루어지고 의안이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십시오.

**박경주 위원** :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다원예술의 경우에는 어디로 지원해야 할지가 전혀 없어서요. 작년에도 애로사항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올해도 보니까 복합장르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요. 56페이지를 보면 복합장르의 예시가 “그림책 정식 발간, 팝업북 발간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장르를 여기에서 정의한 것은 “문학, 시각, 공연예술 2개 이상 장르가 복합된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니까 다원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신청해야 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추가로 안내가 될 수 있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추가 안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박경주 위원** : 그러니까 다원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복합장르로 내는 것인가? 아니면 공연예술에 내야 하는지가 불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구 안내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괄호 열고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로 병기를 했고요. 공연예술에서 제시한 5가지 장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합장르로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원예술 등”이라고 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복합장르에 다원을 병기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박경주 위원 :** 괄호 안에 “문학, 시각, 공연예술”로 되어 있는데요. “문학, 시각,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 2개 이상 장르가 복합된 사업 등”으로 해 주실 수가 있나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저희가 복합장르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새로운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한 용어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복합장르로 신청하시는 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은 되거든요.

**박경주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문학, 시각, 공연예술만 넣었는데 다원예술을 추가로 넣어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본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서는 예시로 “그림책 정식 발간, 팝업북 발간 등”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매칭이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서요. 그러면 “다원예술은 공연예술이 기반이면 공연에 내고 시각이 기반이면 시각에 내라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원장르 구분의 복합장르 안에 다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된 안을 반영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들이 찬성의 의견을 표시하였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보고되는 2개의 안건은 기관의 기본규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받아 최종 개정되는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안건번호 제935호 보수규정 개정의 건입니다.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 인재성장부장이 보고를 해야 하지만 다른 일정 중에 있어 류재수 기획조정부장이 대신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934호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 임원과 직원에 대한 연봉 인

상률이 통보되면 이에 맞춰서 기본규정의 보수표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시면 정부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기관장, 상임이사, 감사의 기본연봉은 21년 대비 1.4%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70쪽을 보시면 관련 규정의 연봉표가 1.4% 증액된 표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별표에 있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의 보수규정 개정(안)입니다. 보수규정 개정(안)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1.4%가 인상되는데 72쪽 하단을 보시면 1급부터 5급까지 초임연봉은 1.4% 인상을 하고 신입사원 직급인 6급, 7급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50%를 적용하는 건입니다. 이 부분은 73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동일하게 인상했을 때는 신입직원으로 들어온 직원과 그전에 들어온 직원의 임금이 같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반의 인상률을 적용하거나 몇 년간 인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74쪽의 보수표를 보시면 7급은 2,000만 원에서 2,014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6급도 3,000만 원에서 3,021만 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즉 1.4%가 아니라 0.7%가 인상되는 안입니다. 그리고 5급부터 1급까지는 지침에 따라서 1.4%가 증액된 금액으로 보수표가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장이 설명하는 것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이 기획조정부장이 대신하여 보고를 드렸는데요. 의견이 없으시면 차례로 의결할까합니다. 먼저 제934호 임원 및 사무처장의 보수 등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찬성하는 분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제935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계속해서 남은 2개의 의결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과 기본재산에 대한 의결을 받는 안건입니다. 먼저 안건 번호 제936호 2021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과 안건번호 제937호 2021년 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책임 주체입니다. 거기에 따른 의결이고 결산(안)이며 동시에 기본재산 설정에 관한 의결(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의 고유권한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중요도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강병주 경영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 이후에는 위원님들의 사전의견에 대해서도 연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회의자료 76페이지입니다. 안건 제936호 2021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회계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다. 문화예술진흥기금회계인데 이 회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사업과 용자사업 그리고 골프장 회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는 고유회계인데 여기에는 문예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회계이며 문체부 국고사업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수탁해서 운영하는 수탁사업 회계를 총괄해서 고유회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료로 같음하고요. 추진 절차와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금년 1월 중순까지 결산보고서를 작성했고 1월 말까지 외부회계법인의 결산감사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외부 회계법인은 도원회계법인에 위탁을 하였고요.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 골프장 회계를 먼저 수감 받았고 1월 27일부터 1월 29일까지 저희 문예기금과 고유회계에 대한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감사의견은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해서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실무 검토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늘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을 위해서 7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회계별 수입·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지출했느냐에 대한 수지현황표를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총 4,230억을 받아서 지출은 총 4,230억 지출했는데요. 여기에는 통화금융기관예치금이라는 회수와 예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말 적립금으로 쌓여 있던 예술위원회의 종자돈을 예금이 만기되었을 때 회수하고 다시 재예치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현금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수입의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와 지출의 통화금융기관예치를 빼면 순수하게 들어온 수입은 기금회계의 경우 수입은 3,220억 원이 들어왔고 지출은 3,523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 기금의 현금수지는 303억 6,000만 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고유회계의 현금수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회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타 기관이나 국고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액 소진이 원칙이고요. 만약 남는 게 있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남는 금액은 반납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서는 돈이 쌓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고유회계 수입은 660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지출은 660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차익은 4,200만 원이 발생하지만 이것은 위원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해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80페이지 밑 부분의 재정 상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라고 하면 각 회계별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회계의 재정 상태를 보시면 자산이 2021년 말 6,925억 원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말 7,015억 대비 90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691억 원으로 2020년도 715억 원 대비 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은 6,234억 원으로 2020년도 말 6,300억 대비 66억 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고유회계의 재산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유회계는 보통 사업비로 받아서 사업비로 전액 소진하기 때문에 재산이라는 것이 없는 게 원칙이지만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라든가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산으로 남게 되고요. 총 자산은 15억 원인데 2020년도 대비 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5억 원이 증가한 것은 예술기록물DB구축사업이나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나 서버 구입 또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자산구입비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도 사업이 종료 되고 나면 각 회계를 담당하는 문체부나 기금소관기관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부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15억 원 전체가 부채 15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영업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상태라는 것은 경영활동을 한 결과 이윤을 발생시켰는가? 아니면 손실을 발생시켰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회계를 보시면 총 수입은 3,514억 원이었는데 총 비용은 3,542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고유회계를 보시면 총수입은 657억 원이었는데 총비용도 657억 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사업비 전체를 소진하거나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의 차이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당기순이익 2,08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각 회계에 자금을 예치해둔 은행의 보통예금 이자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2월 28일까지 문체부에 결산보고를 제출하게 되고요. 기금회계 같은 경우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로 제출되고 국무회의 결과를 거쳐서 국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재산 설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을 설정하는 것은 예술위원회 정관에 토지나 건물, 기계장치, 적립금 등의 중요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고 정관 별지에 그 목록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결산을 통해서 현황화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기재된 정관 별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화 된 기본재산 설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위원회 2020년도 기말 잔액이 3,411억 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524억 원이 감소해서 2021년도 말에는 2,887억 원이 되었습니다. 524억 원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적립금 감소입니다. 사업비가 늘고 수입은 줄어든 관계로 2021년도에 적립금이 304억 원 감소했습니다. 수입이 3,220억 원 들어왔는데 지출은 3,524억 원이 발생해서 현금수지로 304억 원의 적립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4억 원의 가치 감소가 있었습니다. 포함 520억 원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뉴서울골프장 같은 경우는 전액 구축물이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으로 6억 7,000만 원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 기본재산은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세부 현황은 85페이지 하단에 있는 각 명세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사항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위원님들의 사전질의가 있었나요? 있으면 우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흥태림 위원님께서 결산안에 대한 재원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홍태림 위원님이 결산(안)에 대해 의견을 주셨고요. 문예진흥기금 재원 대책과 관련해서 전문가 회의를 2차까지 진행했고 관련 대안들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향후 어떤 안을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국회 문체위의 원구성이 바뀌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입법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과제로 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인수위가 작동하는 단계에서 문예진흥기금 안정화가 국정과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당이나 인수위에 제안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된다면 공론화를 위해서 언론에 문예진흥기금 안정화에 대한 기고 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모두 타당하신 의견입니다. 지금 각 당의 문화예술 공약은 모두 나와 있는 상태이고 문예진흥기금의 안정화 재원 확충이라는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안정화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 작업이나 언론 기고에 대해서 사무처에서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진행되었던 간담회 후속사업을 통해 문체부와의 추후 논의와 대안을 내는 과정에서 재원마련과 관련된 것은 주요한 의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진행 중이라는 부분까지 함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추가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을 할까합니다. 먼저 제936호 2021회계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없고 다수의 위원님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안건번호 제937호 2021회계연도 기본재산 설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찬성하는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고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여 제326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10개의 의결안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7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정회)

(16시 48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에 앞서 위원회 결산과 기본재산 설정(안)과 관련해서 상임감사님께서 위원회에 의견을 주시겠다고 발언요청을 하셨습니다. 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요원 감사**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결산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22년도 역시 코로나 상황이 전반기까지 간다고 간주하더라도 2022년도 저희는 마이너스 결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년 동안은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사이에 저희가 문체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기금을 털어서 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위원님들께서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셨다가,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문체부를 통해서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요. 사무처에서는 기재부와 협의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3개년의 전체 재정운영의 마이너스 기초를, 예술계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재정을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기재부와 문체부가 요청해서 우리 기금을 털어서 선지급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체부와 문화예술기금의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급했던 재정의 충당. 빨리 그것들을 충원시켜주는 문제라든지 향후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기금을.....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판단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도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사는 일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금을 털어서 써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판단을 하실 것이냐도 위원님들이 저희들 기금운용의 전체적 흐름을 보고 잘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타당성이 있어도 위원회는 현재 재정운영이 어려운 형편에 대해 인식해야 하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문체부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재정의 충당, 정부의 목표대로 확충하는데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의 몫을 다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위원**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끝나면 되게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임기동안 여러 차례 제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진행되려면 첫 번째로 위원회 차원의 중기재정워크숍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비상임위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일상적 추진체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기 위원회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TF 제안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무처와 위원회가 시스템화되어야 대응이 되는 것이지 회의 때 그냥 언어로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7기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기초실이나 위원회 차원에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재원확보계획이라든지 재정원칙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과 실행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임기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운영계획을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실행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못 가서 죄송한데요. 아까 감사실장님의 발언 부분은, “위원회 회의에서 왜 감사실장님이 발언을 하느냐?”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감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업무협의를 하고 크로스체크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전화 되거나 준비가 돼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남요원 감사 :** 우리 감사실장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의아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실 입장에 서서 약간의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현재 저희들 감사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행정 안에서 서로가 점검하고 얼마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나?”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행정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일상감사만 해도 감사실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일상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명이 감당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요. 심지어 옴부즈만으로 들어온 것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7건에서 지금은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나가 답변서를 붙이는 것이 감사를 하는 것에 거의 준하는 점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실장이 전체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업무를 감사실장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실무부장과 협의를 해야 될, 실무부장을 통해서 서로 논의해도 적절할 일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퍼실리테이터가 해 왔던 일을 우리가 회계정산 그러니까 사무행정의 회계정산을 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무행정이 보조금의 정산작업을 보조금법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자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남요원 감사 :** 예,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 감사실장이 그 부분을 확인코자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이원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기재정뿐만이 아닙니다. 중기재정뿐만 아니라 중기재정을 포함해서 운용되어지고 있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는 위원님들이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저는 부정기적보다는 정기적인 것으로 늘 끊임없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조부 그리고 집행하고 있는 경영지원부는 끊임없이 소통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원재 위원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회계와 관련해서는 정례적인 보고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대충 단년도 보고만 받지 않습니까? 회계라는 것은 흐름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 흐름과 그 흐름을 통해서 내년도 회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이제부터 보고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총 7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직무대행이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텐데요.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가 보고안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외에는 3개 소위원회의 4번의 회의 개최 결과보고 그리고 3개의 TF에서 6번의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우선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일괄하여 검토한 이후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보고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첫 번째로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와 관련해서 경영지원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87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안건은 325차 전체회의에서 예술위원회 안전경영책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요. 이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검토의견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전차 회의에서 이진희 위원님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대피하기 위한 조치사항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재난 상황 발생 시 구체적 현장 대피 요령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정숙 위원님께서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설비와 안전장비를 확보하고 운용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홍태림 위원님께서서는 2023년 예술가의집 운영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무처에서 후속 조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시설별로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하고 재난상황 대응훈련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각 시설운영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경우 공연장 비상상황을 대비한 장애인대피 대응훈련을 연간 3회차 내외로 실시하겠다는 것과 장애인접근성 개선계획을 위해서 개보수 공사 3개 과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배리어프리 공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르코미술관의 경우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노약자 대상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것과 개선된 계획을 담은 시설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술가의집 같은 경우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2층에 있는 종합안내센터를 1층으로 옮겨서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선계획은 붙임 그리고 각 시설별 운영계획에 관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경영지원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의 위원들 지적에 따른 추가보고이므로 의결안에 준하여 의견개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계획과 재난관리 매뉴얼 관련해서도 별첨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술가의집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과 관련해서 리프트 설치를 알아보기로 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후원센터에서 장애인 공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하는 안을 업체에 문의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술가의집 내진 보강공사가 7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더라도 금년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는 이후에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진희 위원** : 예, 감사합니다. 너무 잘 준비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설운영계획 등에 이게 명시되어야 내년에 잊지 않고 챙겨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계획서의 보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강병주 경영지원부장** :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술가의집은 아무리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이동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낙후한 환경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2023년도에 말씀하신 내진공사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잡아서 적어도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건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진희 위원님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접수를 받을까 하는데요. 안전경영책임계획(안) 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 보고는 이렇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소위원회 및 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하는 방법을 우선 상의할까 하는데요. 소위원장 또는 TF팀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정책혁신 부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견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정정숙 위원** : 소위원회와 TF 보고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에서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요. 논의 때 소위원회나 TF의 위원장이나 팀장이 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으면 좋겠

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6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정책혁신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92페이지입니다. 제26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에 개최되었고요. 지금 주요 논의내용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듯이 3가지 정책제안에 대한 결론 부분,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술의 현재성 정책제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트랙을 갠 ‘오픈 트랙’ 방식의 수시지원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93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 예산의 일부를 개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술변화에 따른 예술지원정책 제안도 기반 구축이나 협의체 구성, 사업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써 변경·확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후위기 시대의 문화예술정책 제안도 제안사업의 과제가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당시 2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저희가 제안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3월 3일까지는 3개 연구에 대해서 워킹그룹별로 제안서를 수정·보완해서 위원장님과 저희 사무처 쪽에 주셔서 종합적인 정리를 실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차, 39차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있었고요. 38차는 저희가 나주 본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회의안건은 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문학집필공간 중 한 곳에 관한 운영 문제 제기, 다원예술 지원사업에 대한 정상화 촉구 제안, 모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다원예술 지원사업 정상화 촉구 제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이스북에 게시가 완료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게시가 되었던 성명서 후속조치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잘 이행이 되기를 현장소통 소위원회 관점에서 잘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 소위원회 페이스북 관련해서 운영 논의가 있었는데요. 최근 저희 페이스북에 약간 정치적인 지지 부분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글이 막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가이드를 줘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39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이때도 이전에 논의된 건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계약취소에 대한 매뉴얼 제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취소 과정에서 정산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올라

왔지만 저희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정도를 저희가 제안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의 출신 편집부 구성 문의가 있었고 문예지발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정시공모 때 일부 탈락된 단체에서 제안으로 올라온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공유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현장소통 소위원회 차원에서 대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회의록에는 없지만 최근 문학지원부와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백서 추진 계획 및 방향성 논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4인의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하셨고 위원님들이 전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백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혹시 소위원장님께서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홍대림 위원 :** 간단히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체회의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저희 3기 현장소통 소위원회 활동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라서 당겨서 공유를 드립니다. 현장소위 정책제안 홈페이지가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 최대한 자유로운 정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정책제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희 소위원회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제안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광고라든지 정책제안과 전혀 상관없는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저희 소위 차원에서 작성자에게 문의드릴 방안조차도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요. 정책제안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최소한 지켜주셔야 할 부분들, 가령 광고나 욕설, 비방, 허위사실유포 등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양해야 한다는 안내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보완할 부분들을 3월 중에 추려서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현장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서와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이 생기고 조언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생기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주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39차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있었던 의견 중에 무용 분야 의제가 여러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제 분야이기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 승무, 삼고무 관련한 전통무용 사유화 이슈와 무용학원의 작품비 등이겠죠. 그리고 성폭력 등 각 방면의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이런 공론화된 의제는 아마 소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여기에 보면 답변으로 “인터뷰나 간담회 진행과 관련해서 정책혁신부와 협의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단순하게 인터뷰로 해결할 수가 없는, 예를 들면서 무용학원에 다니는 예비 예술가를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지만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혹시 추후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대립 위원 :** 예, 39차 회의 때 저희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무용 분야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임기동안 본인들이 현소위에 들어오셔서 공론화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었어요. 승무나 삼고무, 무용학원 그리고 무용계의 특수성을 기반한 성폭력 관련된 사안들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공론화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과정이고요. 그 논의과정을 통해서 39차 때 이야기 했던 것은, 이 의제를 갖고 계신 2인의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비공개 간담회 같은 것들을 진행해보고 비공개 간담회를 바탕으로 저희가 백서를 만들 것이니까 백서에 차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이런 의제들을 공론화하거나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후 우리가 논의해 볼 점들을 제안해 보면 좋겠다. 그 정도의 글을 적어서 “백서에 넣으면 어떨까?”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제도 광범위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피해 당사자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업계가 작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셔서 어떻게 공론화를 할 것인지는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밖에 말씀할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기회가 되시다면 제게도 미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대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 8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 8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2월 9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논의안건은 저희 소위원회에서 계속 관심 있게 연구가 되고 있는 20·30대 여성예술인의 예술계 진입구조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방향 연구에 대한 진행사항입니다. 이때는 최종 공유였는데요. 이 연구가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9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활용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겠고 관련 내용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문예진흥기금사업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규정 후속논의 진행사항이었습니다. 자료는 11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지원총괄부에서 작성했던 신규안 관련된 논의를 공유해 주셨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진희 위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원총괄부 의견에 수정안을 준비하되 근거를 명시하고 정리해서 페이지로 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을 진행해서 이 부분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진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 :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 부장님께서 소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드립니다. 일단 상반기 활동 계획을 오늘 공유하는 이유는 관련된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하시거나 추진해 주시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이 안은 월요일 성평등 소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여 세부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먼저 고충처리 규정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원총괄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원총괄부에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체부에서 권리 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와 제재 권고 등에 관한 사항들이 어떤 방식으로 계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예술위 성평등 소위와 문체부가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간담회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가 진행할 것이라고 저희가 마냥 믿고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요. 지원총괄부에서 교량 역할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총괄부 진행에 대한 요청사항이 작성되고 있고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시행령을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현재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총괄부에 이 내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평등 소위원회 성희롱·성폭력 대응 규정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아가는, 이것은 규정에 대한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자리는 결코 아니고요. “앞으로 예술위가 이렇게 추진할 테니까 힘을 모으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라고 현장에 홍보하는 과정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원총괄부에 요청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는 성소위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혁신부에서 같이 지원해 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시행령(안)을 확인하고 문체부가 어디까지 할 계획 인지를 확인하고 토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지원총괄부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불평등 실태분석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전과 다른 젠더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성, 연령, 지역, 경력 등의 내용이 어떻게 불평등 구조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연구가 곧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청년TF가 공동간담회를 추진하면 이 내용을 환류하고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의 계획이나 토론 같은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혁신 소위원회와 청년TF를 맡고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월이나 4월 초에 사전 간담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정책혁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장 지원총괄부장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회의에 대기 중인가요? 즉시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회 때 위원이 요청한 것이니까요.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예. 사전에 이진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요청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문체부로부터 공유 받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하 요청사항은 이진희 위원님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꼭 질의가 아니더라도 소위원회와 TF 개최 결과보고가 이어지는 동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해서 제7차, 제8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TF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예, 제7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회의 개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저희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의 소통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저희 TF에서는 3월 내지는 4월의 기간 동안 외부 피해자. 그러니까 저희 문화예술계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컨디션 차원에서 저희가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자문회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 자문회의는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아르크혁신TF 과제에 대한 정리 부분인데요. 단순수탁, 지정교부사업, 안정 재원 마련에 대한 안건논의가 있었고요. 이와 별도로 재원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도 실시하였습니다. 심의제도 혁신 관련 안건을 다루었고요. 이행협치단 후속조치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 감사실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의 소통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참석자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인 정도는 바뀌었는데요. 나머지 분들은 모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이행협치단 후속조치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제 8차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내용입니다.

저희 8차 회의는 사전간담회 이후에 회의를 가졌던 시간이고요. 피해자소통 사전자문회의 결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기업과 회복을 위한 치유사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사전자문회의를 했을 때 “우리 예술위원회 의도와 다르게 TF 차원에서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는 부분은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피해자 활동 단체, 매개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도 소통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개방형 공론장 기획·추진이나 향후 이행협치단과의 협력 부분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관의 구성원 대상 소통프로그램 기획이나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과 채널 확보 등에 대해서도 여전히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예술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내외 소통 관련된 논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TF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전에는 국립극단의 관계자를 모시고, 국립극단은 저희보다 규모는 작습니다만 피해자 소통을 실제로 기관 차원에서 옮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며 무엇을 더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블랙TF 회의에서 이 부분을 더 반영시켜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TF팀장님께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은 아니고요. 블랙TF 활동과 관련해서 회의록이 나갈 경우에 사무처 직원들도 보실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심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염려하는 건 그겁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와 회복을 위한 TF가 만들어져서 사무처 내부에 계시는 관련자들, 예컨대 가해자의 정체성과 피해자의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이 조직이 보호해 주지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 외의 신규직원들조차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내지는 피해성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데요. 우리 TF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상처들이 덧나고 피로운 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외부에 있는 예술가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소통을 요청하고 있고 공식적인 사과 외에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만날 때 늘 방어적인 입장, 소극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된 발언도 못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소통의 창구는 열어야 되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아무도 굽어 부스럼을 내지 않고 이 상태로 말없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까지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한편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언급도 있어서 저희도 이 TF가 굳이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예술계의 과거사가 잊혀질 수 없는 일이고 뭔가 회복되면서 예술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일이라면 늦었지만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라도 내부의 회복과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회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 서로 다치지 않고 좋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해 가고 있다는 점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내부 사무처와 피해자가 같이 소통하는 2가지를 같이 잘 가지고 갈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제 9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이제승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인력양성부장** : 회의자료 123페이지 제9차 청년예술TF 회의 개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에 총 5인의 위원 중에 성연주 위원 한 분을 빼고 위원 4인이 참여하셔서 진행이 되었고 회의안건은 총 3건이었습니다.

미래예술 10대 제언 초안 구체화 및 인터뷰 대상 확정에 대한 논의, 미래예술 10대 제언 시각화 및 확산 방식에 대한 논의, 세대 및 성별 균형을 갖춘 예술위 위원 선임 제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문가 자문회의 준비 및 국회와의 연계 방안 논의였습니다.

논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래예술 10대 제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4개 파트로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사람으로 누구를 요청하는가?’ 세 번째 ‘왜 현시점에 미래예술의 제언이 필요한

가?’ 네 번째 ‘미래예술 제안의 방향’ 그리고 ‘미래예술 제안 방향’에서는 크게 3가지 키워드가 도출된 상태입니다. ‘공정하고 다양한 기획’, ‘생존과 작업을 아우르는 지속가능성’, ‘예술과 창의성에 기반한 가치’를 키워드로 해서 10대 제언을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예술 10대 제언 수신 대상에 대한 논의, 예술현장의 동료 그리고 저책현장의 파트너로 정리하고 있고요. 제언문 구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언문 내용에 대해서도 “기회라는 키워드보다는 다양성”, “공정정보다는 투명성” 등 키워드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아직 확정은 못 했지만 각자 추천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의 미래예술 10대 제언 시각화 및 확산 방식 관련해서 청년예술TF 출범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작성되어 배포가 되었어요. 미래예술 10대 제언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시각화는 국회에 ‘청년다방(2040)’ 예산지원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예술진흥법과 관련되어 세대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2월 3주차 자문회의를 예정했지만 3월 7일에 자문회의를 할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후 차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로 들어갈 텐데요. 지원총괄부장이 우선 보고를 하고 TF팀장으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화 지원총괄부장 :** 다원예술 TF 회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결과는 전차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3차 회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37페이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박경주 위원님을 포함한 외부 위원님과 함께 TF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총 논의안건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위원회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후속조치 중에 예술인 심리 상담과 관련된 내용의 검토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인복지재단과 실행(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 전 단계로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아까 의결안건으로 보고드렸던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아까 의결안건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TF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매개나 플랫폼 지원을 공모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여부였는데요. 아까 보고를 드렸던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은 하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차년도 예산의 확장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TF팀장께서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보고를 잘 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기간이 짧은 TF라서 남은 라운드테이블 등을 추진하기에는 일정이 많이 빠빠한데요. 지원총괄부 업무도 많아서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요. 최대한 TF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과 소통해서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원공모안도 통과시켜 주시고 올해 10%도 안 하

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받았고요. 위원님들의 추가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소위원회와 전체 보고안건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열 위원** : 그냥 하나 궁금해서요. 청년예술TF에서 당초 구성한 6명에서 성연주 위원이 제외되었다고 적혀 있는데요. 현장소위에서 어렵게 모셔왔는데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되었나요?

**홍태림 위원** : 개인 일정 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추가 질의가 없으면 7개의 보고안건을 모두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접수 받았습시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하여 모든 보고사항까지 마쳤고요. 차기 회의 일정을 상의해야 하는데요.

**이진희 위원** :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회의가 아니면 추진과 확인이 어려워요. 제가 조문비교표를 보내드렸는데요. 검토의견을 빠르게 지원총괄부에서 확인하신 후에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회람하실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3월에 의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과 시행(안)까지 제가 다 확보해서 검토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대응체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술위가 규정을 만들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은 문체부가 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전망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문체부의 양성평등정책과에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성소위가 이 안에 대해서 제안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에 같이 힘을 모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지원총괄부에 제안드렸습니다. 추후에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는데 깜빡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에서 앞으로 피해자소통 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계획은 아직 완전히 수립되지 않았습디다만, 저희만의 전문성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들과 충분한 교감이 있는 몇 분을 TF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같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TF 안에서 그 간담회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통 소위원회가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용어는 사무처와 상의를 해서 작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두 분의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까지 포함하여 접수받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코로나의 위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어찌 지내왔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디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정점을 향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술계는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것이고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디다만 문화예술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감당해야 할 어깨 위의 짐은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회의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시간에 회의를 마치지 못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전해 드리고요.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과 우리 회사가 지금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기능 유지를 위한 방편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동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선택해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으나 보고자와 사무처직원들은 위원회라는 이유 때문에 이른바 나주 본사에서 서울의 예술가의집까지 출장을 오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부장과 기획조정부의 위원회를 담당하는 실무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고 3월 간담회와 정기위원회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오늘 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회의종료)

